시선AI (340810)

시선(눈길)을 로봇 사업과 흑자전환으로 돌려주세요

ARIS
더 많은 보고서는 텔레그램 채널로
@ARIS1031

Info

기업탐방 일자	2026.05.22
발간 일자	2026.06.16
투자 의견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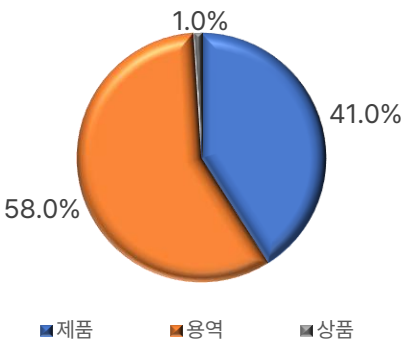
Company Data

시가 총액	368억원
상장 주식수	13,644,976주
액면가	500원
외국인 소진율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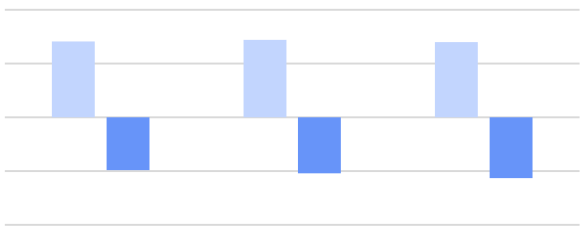
Report Summary

- 2010년 설립. 2023년 코스닥 상장
-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 개발 및 솔루션 개발, 자회사 로봇 사업 영위
- 한화로보틱스와 1.5조원 규모의 스마트 APC 시장 정조준
- 다변화된 사업 부문에서 솔루션 공급 및 용역 사업으로 수익성 개선
- 26년 공식가이던스 없음. 영업이익 창사 이래 첫 흑자전환 도전

매출 비중(연결)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자료 : 시선 AI

단위 : 억원

Analyst

이재모
charisma38@naver.com

ARIS
INDEPENDENT
Analysis • Research
Investment • Stock

기업 탐방 사진



시선AI(340810)

기업 개요

시선에이아이(영문명 SECERN AI)는 2010년 5월 31일 설립되어, 2023년 5월 19일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개발, 학습 데이터 구축, Vision AI 기반 솔루션 개발 및 전용 하드웨어 설계를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 유온로보틱스를 통해 비전 AI 기반 로봇 그리퍼 등 '피지컬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AI 얼굴인식 시스템, AI 얼굴 인증 솔루션 등을 대기업, 공항 및 정부청사 등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주요 주주는 남운성 등 특수관계인 20.02% 보유중이다.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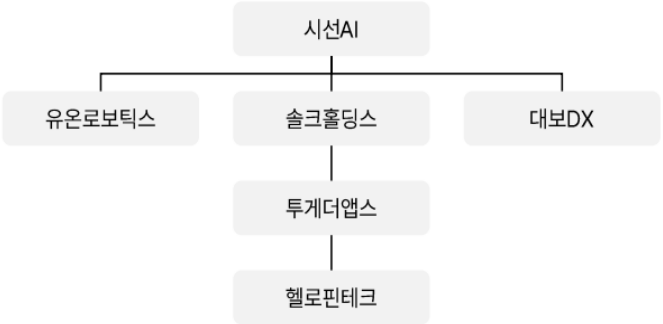
시선AI는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시각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Vision AI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두고 있다. 독보적인 얼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공항(SEEU LINE), 빌딩(SEEU FACE), 비대면 본인인증(SEEU ID) 등 다양한 시스템 및 솔루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얼굴인식 평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 공항, 정부청사, 카지노 등에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국내 최대 수준의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동사는 기존의 시각 보안 영역을 넘어 자회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3개 신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로봇 부문 자회사 유온로보틱스와는 스마트팩토리 및 물류 자동화 시장을 겨냥한 피지컬 AI 기반의 비전 AI 로봇과 3지(3-Finger)로봇 그리퍼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핀테크 자회사 솔크홀딩스 및 종속회사(투게더앱스, 헬로핀테크)들과는 P2P 금융 라이선스 기반의 AI 대출 중개 및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등 금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분야 신규 사업으로 특수 의료기기 없이 일반 RGB카메라 촬영만으로 4대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비접촉 솔루션을 S병원과 공동개발 및 임상시험을 추진중이다.

➢ 시선AI 주요 사업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시선에이아이
설립일	2010년 05월 31일
대표이사	남운성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2
임직원수	56명
매출	139억원

회사구조



자료 : 시선AI

시선AI(340810)

시선AI와 유온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 1.5조원 스마트 APC시장 정조준

시선AI와 자회사 유온로보틱스는 한화로보틱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농협 산지유통센터(APC)의 AI 전환 및 로봇 자동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선AI의 비전 AI 기술, 유온로보틱스의 로봇 제어 기술,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 및 자율주행로봇(AMR)을 결합해 농산물 선별·적재·운반 공정을 자동화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560개의 APC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2027년까지 100개 APC를 스마트 APC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온로보틱스는 APC 한 곳당 약 30억원 규모의 자동화 설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목표 물량만 적용해도 약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APC로 확대되면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유온로보틱스의 핵심 경쟁력은 비정형 객체 처리 기술이다. 농산물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기존 산업용 로봇 적용이 어려웠지만, 회사는 자체 개발한 고정밀 인식·파지·적재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실제로 냉장물류창고 오더피킹과 성주 월항농협 참외 적재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비정형 객체 처리 기술은 농업 분야를 넘어 물류, 제조업, 방산 등 다양한 피지컬 AI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온로보틱스는 2025년 실증 성공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향후 스마트 농업 및 피지컬 AI 시장 성장의 주요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 농협 APC AX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



자료 : 시선 AI, 언론보도

시선AI(34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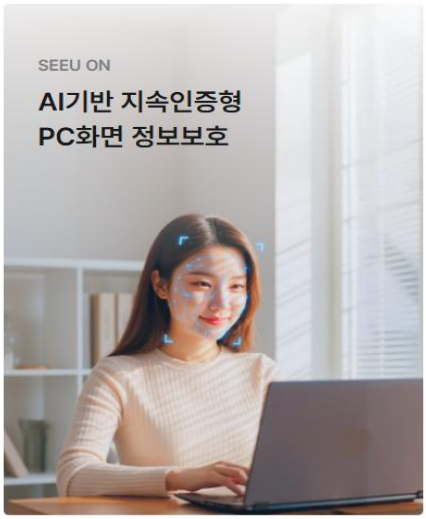
3Q26 흑자전환 시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시작

시선 AI는 그 동안 축적해 온 인공지능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6년 3분기를 기점으로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집행되던 시기를 지나, 2026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 교통안전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보안, 피지컬 AI 등 다변화된 사업부문에서 구체적인 수주 성과와 공급계약이 가시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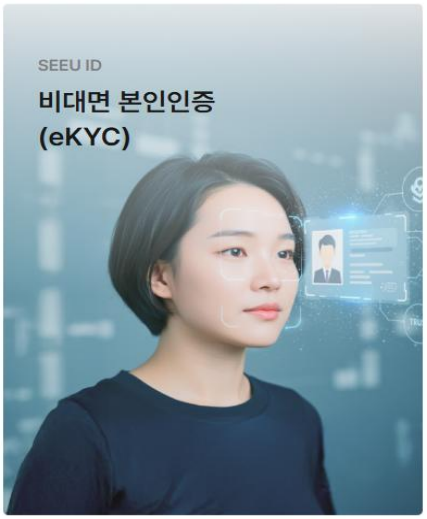
우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화면 인식 보호 솔루션인 'SEEU ON'은 순수 라이선스 공급 모델로서 매출 증가가 곧바로 전사 영업이익 극대화로 직결되는 고수익 구조이다. 현재 S 그룹사, C 전자상거래 업체 등으로 솔루션 공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반기 내에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여기에 외부 소스코드 유출을 차단하는 완전 온프레미스 코딩 어시스턴트인 'IntraGEN X'를 통해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에 선정될 경우 레퍼런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타 금융기관까지 확장이 기대된다. 오늘 9월 초를 선정 시점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동사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이뤄질 전망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약 35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 과제인 '스마트 대중교통 AX' 에 참여가 기대 요인이다. 이 솔루션은 멀티모델 비전 AI 와 온디바이스 LLM을 기반으로 안양과 제주 등에서 이미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전국 4만 5천 대 규모의 버스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 R&D 비용 지출 중심의 사업 체질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동사 전사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며, 동사의 솔루션은 단순히 일회성 수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고부가가치 AI 솔루션 시장 내에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시선 AI 주요 솔루션







자료 : 시선AI

실적 전망

① 26년 1분기 매출액 32.8억원, 영업이익 -27억원, 당기순이익 -28억원 기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6% 증가하며 폭발적인 외형성장 기록

판관비와 금융비용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폭 축소 노력 지속

② 26년 공식 가이던스 없음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26년 큰 폭의 외형성장과 창사 이래 첫 흑자 달성 기대되는 상황

보안솔루션, 로봇 사업 등 사업 포트폴리오 동반 성장에 따른 수익 구조 전환 성공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기준)

	2024	2025	2026(E)
매출액	144	140	-
영업이익	-104	-113	-
당기순이익	-107	-153	-

자료 : 독립리서치 ARIS

단위 : 억원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요인

➢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모멘텀

하반기부터 동사의 주요 솔루션 등이 공급될 이벤트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솔루션 공급 등의 공시 또는 뉴스가 주가 상승의 트리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대기업과 로봇 사업 협력 확대는 주가 리레이팅 요소

국내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기업은 대기업군과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선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협업 모델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동사가 한화로보틱스와 협업을 통해 로봇 사업분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아리스(ARIS) 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